시 론

상상의 도구들, 당신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 호 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평범한 회사원 월터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상상'을 통해 특별한 순간을 꿈꾼다. 어느 날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생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상상은 하나씩 현실이 된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이야기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영화 속 판타지에 머물지 않는다.

생성형 AI는 우리의 머릿속 장면을 몇 초 만에 현실로 바꿔준다. 파리 여행이 그립다면 "에펠탑 앞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이미지 속 주인공이 외로워 보인다면, "귀여운 반려동물"이나 "예쁜 여인과 함께"라고 입력하면 즉시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도구를 넘어, 음악과 텍스트의 분위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안하기도 한다. 깊은 밤 쇼팽의 피아노곡을 들으며 "녹턴 2번의 배경 이미지"를 입력하면 별이 총총한 창밖 풍경이나 달빛이 비치는 호수 같은 감성적인 장면이 나타난다. 우리의 머릿속 이야기는 상상에 머물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와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필수가 아니다. 웹이나 앱에서 프롬프트 한 줄이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웹 소설·웹툰부터 동영상까지, 기획과 편집 전 과정에 AI가 활용되며 제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과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영상도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완성된다.

특히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사실적이고 예술적인 결과물을 빠르게 제공하며, 크리에이터, 마케터, 디자이너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잡한 그래픽 툴 없이 웹에 접속해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동영상 생성 AI는 아직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움, 긴 대기시간 등 한계가 있지만, 이미지 생성 AI는 이미 광고, 마케팅, 출판,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최종 시안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인도 블로그, SNS, 유튜브 썸네일, 가족 행사 포스터 등 다양한 곳에 AI 이미지를 손쉽게 쓰고 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1인 창작자,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AI 아트 갤러리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AI 프롬프트 작가, 아트 큐레이터 등 신직업도 등장하고 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NFT로 판매하거나 맞춤형 아트 상품을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콘텐츠 제작 전반에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창작의 문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월터처럼 평범한 사람도, AI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가족 사진을 AI로 리터칭하거나, 챗 GPT에게 맞춤형 인사말을 부탁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생성 AI에 "벚꽃이 흐드러진 교토의 골목길을 걷는 영상"을 입력하면, 그 순간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업무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획자는 챗GPT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생성 AI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제작한다. 마케터는 한 줄의 프롬프트로 신제품 홍보 영상을 한 줄로 만들고, 교사는 학생별 맞춤형 학습 자료를 AI로 제작해 수업의 질을 높인다.

텍스트 한 줄이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다. AI는 카메라 앵글, 조명, 인물의 표정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며, 상상한 장면을 곧바로 현실로 만들어 준다. 메모해 둔 글 한 줄이 AI와 만나면, 상상은 더 이상 머릿속에 머물지 않는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그저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세상, 당신은 이 도구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모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자치칼럼

아파트주민자치 활성화는 시대적 책무이다

임 우 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우리 주민자치는 윤석열정부의 말살정책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으로서 역대정부가 꾸준히 육성해 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외면 방치함으로써 지금의 좌초상황에 이른 것이다.

주민자치는 IMF외환위기 이후, 일선 읍면동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첫 출발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보다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전면실시를 모색하고 있던 중, 윤석열정부의 등장과 말살정책으로 주민자치는 관치로 회귀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이런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고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여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속히 시범실시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주민자치 모델을 확정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과제와 관련해 공동주택(아파트)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줄어지고 공동주택(아파트)이 늘어나, 현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공화국이다.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빈민층의 주거형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와 지역발전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주거의 아파트화는 1인가구 증가, 이웃간 단절을 가속화시켜 주민간 소통, 화합, 배려,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고 획일적 문화를 확산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거와 관리·사생활보호의 편의성과 함께, 주민자치를 통해 이웃 주민 간의 공동체성을 발휘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읍면동 간의 면적이나 인구규모의 격차가 워낙 크다. 이에 읍면동에 획일적인 하나의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은 자치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아파트단지 또는 통 단위로 농촌은 리 또는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때 아파트자치는 우리 주민자치의 핵심영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름의 자치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는 주로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그치고 공동체적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아울러 운영관리의 투명성이 낮고 부실한 곳이 많은 실정인 점에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아파트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파트주민자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먼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자치적 참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견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다. 같은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깊은 유대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만의 특성이고 자산이다. 현재도 아파트단지별로 다소의 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간의 소통과 공감, 친목 도모, 건강과 취미활동, 학습활동, 상부상조활동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건물과 시설관리만을 함께한다면 우리의 아파트생활은 얼마나 삭막한 일일 것인가? 나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시작된 아파트 주민자치가 그 단지를 넘어서 전체 지역민들에게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간, 아파트와 주변지역의 서로 협력적인 노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일이다.

이처럼 아파트단지가 단순한 건물과 시설의 관리를 넘어 단지내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여기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기구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단지내 자생조직 활동지원 등 공동체 활동여건의 조성, 아파트자치 활동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적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민주시민과 함께 흐트러진 국가정책을 재정비하고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 실질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시대적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이러한 책무는 결국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새겨주기를 바라면서 성공을 기원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여름철 장마·호우, 작은 대비가 생명을 지킨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집 주변의 배수구와 하수구 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침수에 대비한 방수 시설과 대피 경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변 등은 장맛비 시 접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운전자의 경우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와 지하차도를 피하고, 급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마트폰의 재난문자 알림을 항상 켜두고,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의 공식 안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고,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올여름,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장마와 호우 속에서도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신영국·함평경찰서 경무과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인공지능·재생에너지 민선8기 4년차의 남다른 각오

민선8기 3주년 마감과 함께 마지막 4년차의 시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굵직한 현안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하는 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26년 6월3일이다. 강기정 시장은 재선, 김영록 지사는 3선을 각기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면 오롯이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각오에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강 시장은 '위기 극복과 헌신'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가장 먼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꼽았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지연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복합쇼핑몰 착공과 후속 교통 대책,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위한 2단계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통합돌봄 확대와 지원법 정착 등은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선7기부터 일해왔지만 아직도 더 추진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등 국가지원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주요 성과론 출생기본수당 지급,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들었다. 남은 1년은 역점 사업은 농협·수협 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유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대표적이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광주를, 김 지사는 더 크고 위대한 변화와 혁신의 전남을 다짐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와 동행을 통한 민생 경제의 회복을 피력하고 있다.

민선8기 취임식을 통해 강 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담은 행복시대 비전을 선포하며 200만 도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민선9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도전도 거셀 전망이다. 시·도민들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평가할 것이다. 주요 공약에 대해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결과가 나왔나 살필 것이다. 물론 지금껏 모든 걸 쏟아부었을 테다. 4년차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소통 부족 지적 나오는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해당 지역과 인근을 대상으로 분석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광주시는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여전히 우려가 컸으나 강행돼 불상사가 일었다.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필수 사업이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차례 공모를 진행한 이유다.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30여 세대에 달한다며 특정하고 있다. 배후 및 조종세력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격앙돼 있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는 7월14일까지 청취한 여론을 반영해 본안을 만들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뒤 9월께 최종 입지를 고시할 예정인데, 첫 절차부터 꼬이고 있다.

첫 설명회였다. 인근 함평군민들도 합세했다. 이들은 후보지 5㎞ 반경에 위치해 유해 물질로 피해를 보는 만큼 환경권, 건강권을 위해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 말끔하게 풀어내야 한다. 광주시 입장대로 광산구청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했다면 더 소통하고 더 설득해야 한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겠다.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더는 끌어서도 안 된다. 기피 혐오시설을 반길리 만무하다. 친환경 랜드마크로서의 비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의 귀가 아닌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사회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

아침을 여는 詩

비는 내리는데

함진원

수수한 사람들끼리 국숫집에서 국
수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기어이 흥을 놓다 콧물 훌쩍인다
여름비는 차갑게 내리고
집에 갈 생각 안 한 채
버스 끊긴 지 오래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불어 터진 국수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달빛 몸 불어오고
파꽃 여물어간다.
(시집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 푸른사상, 2023)

[시의 눈]

소박(素朴)은 가공되지 않은 사물의 본바탕, 원래의 모습을 뜻하는 말. 소박미는 인위적 기교가 더해지지 않은 원래의 자연스러움이 풍기는 미적 쾌감이다. 수수한 사람들끼리 국숫집에서 국수를 먹는다. 화면은 박꽃처럼 소박함으로 물들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숨결이 잡혀든다. 관계의 거리는 간격을 줄여 애착의 거리로 좁혀진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일상의 공간 속에서 동질감을 발견한 자아는 뜻밖의 전리품을 얻는다. 안정감과 소속감을 부여받는 것이다. 소박성은 참다운 실재를 파악하는 마음의 눈이다. 그 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교감은 속도를 더한다. 스스럼없는 삶의 애환이 오고 간다. 흥을 놓고 덩달아 콧물 훌쩍이며 공감을 주고받는다. 현실의 무게감. 그것은 더러 공감의 파도를 타넘으며 해소되기도 한다. 상대 영역으로 뛰어들어 가 끄덕이고 맞장구치는 사이 삶의 갈등은 봄눈이 돼 사라진다. 소박미는 꾸밈없이 참된 순박한 마음이다. 꾸밈이 지나쳐 시인의 참된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날 때느끼는 그윽한 내적 힘이다. 불어 터진 국수 먹으면서 애환을 나누는 소박한 미는 그 안에 절제와 함축을 품고 있다. 율곡은 '정언묘선서'에서 글의 수식이 지나쳐 시의 맥락이 참을 잃는 것을 우려했다. 참은 소박의 결곡한 열매이다. 순수 감정의 동일체이자 분리되지 않은 공동체의 합일정신이 만나는 지점. 소박한 도(道)는 자연의 이치와 합치하는 법이다. 공감의 공간에서 하나 됨. 그것은 뭉클한 위안이다. 한 요소가 된다. 율곡의 이러한 생각은 청장관 이덕무에게 이어져, 책읽는 바보 이덕무는 '수진헌기'(守眞軒記)에서 '박소'(樸素)를 교사(巧詐)와 상반된 것으로 보면서 박소를 취하는 이는 참된 것(眞)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화면은 여름 빗소리로 물들고 있다. 객체인 국숫집에 모인 수수한 사람들은 소박미의 주체가 돼 찐득한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버스가 끊긴 시간이지만 관계치 않다. 세상 이야기 공감하며 서로가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다. 이 공간이 아말로. 〈윤삼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